



SHARE LIGHT

Day-3 (1)

주요 이벤트

- NGO 팀앤티팀이 설치한 정수기 필터링 시스템 소개
- 마을 초입의 물사정 확인하였으며, 하루에 30분정도 산정상의 냇물을 호스로 마을 공급중
- 열악한 물사정으로 설사병 만연
- 짜우르자하리 시장님 방문하여 면담하였으며, 병원식구들과 같이 조찬을 같이 함.
- 시장은 쉐어라이팅의 열원을 양초에서 기름등으로 바꾸는 것, 퓨리라이트의 사용은 만족하나 학교 교실마다 둘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만들어 줄것, 퓨리캡의 정수성능을 크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청을 해 음

현장 사진



[팀앤티팀 설치 정수시설]



[호스물 받기 위해 대기중인 물통들]



[현지 시장과 면담 중]



[시장과 함께 단체 사진]

주요 이벤트

- 오후에는 거의 산 정상에 있는 암라타구라 학교에 방문하여 쉐어라이팅 사용 현황 파악함
- 암라타구라 초등학교에는 48개의 쉐어라이팅이 공급됨 (단일 최대)
- 전교생 150명과 단체 사진 찍음
- 환자집에 방문하였으며, 환자가 퓨리라이트를 사용하는 현황을 확인함
- 척추질환으로 수술후 10개월간 병원에 입원하다가 3주전 퇴원한 환자로, 설사병으로 고생많이 하였음. 병원 약으로도 낫지 않던 병이 퓨리라이트 사용후 깨끗이 나았다고 함

현장 사진



[Thank you 현수막 단체사진]



[학교장선생님 과 쉐어라이팅]



[환자 집에서 면담 중]



[퓨리라이트 실제 사용 시연 중]

주요 이벤트

- 대학 졸업후 10년째 활동중인 박민수 선교사와 면담
 - 한동대 건축 전공으로 예수전도단 소속으로 가족 모두 파송됨
- 네팔인 라트나 목사집에서 현지 쉼어라이팅 사용현황 촬영함
 - 현지 사용에 좀 더 적합한 여러가지 아이디어 제공해 줌

현장 사진



[박민수 선교사 가족]



[라트나 목사님 가족]



[쉐어라이팅: 가족들 밤에 공부하는 모습]



[쉐어라이팅: 설거지 장면]

주요 이벤트

- 짜우르자하리 출발에 앞서 갈렘목사와 기증식
- 다시 네팔군지로 출발함
- 네팔군지에서 1박 후 카트만두 비행기 이동
- 20시 카트만두 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귀국

현장 사진



[갈렘병원장과 딜기리 병원장]



[기증식]



[병원 직원들과 같이 촬영]



[병원 직원들과 식사 모습]

“나마스떼”